

로벤, '새술은 새부대에'

보급형 커피자판기/PET·캔 냉음료자판기 선보여

로벤의 최근의 사업행보를 표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말은 '적극성'이다. 캐리어자판기 사업을 인수해 새롭게 출범한 로벤은 적극적인 도전정신으로 인수공백을 느낄 겨를도 없이 거침없는 사업행보를 밟고 있다. 이런 동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바로 이번에 선보인 신제품들. 발 빠르게 시장니즈를 부합하기 위해 온음료자판기와 냉음료자판기 각각 한 모델씩 출시했다. 로벤은 이번 신제품 출시를 필두로 올해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. 기존 제품의 디자인과 성능을 개량한 변경상품들도 속속 출시할 계획이다. 이번 호에는 '새술은 새 부대에'를 기치로 선보인 신제품 2종류를 소개한다.



'거품을 빼고 실용을 판다', 슈퍼슬림 웰빙 커피자판기

지금까지 국내 음료자판기 시장에 있어 마땅한 보급형 제품이 없다는 게 아쉬움으로 지적되어왔다. 고가 가격대에 대용량의 대형자판기 일색이다 보니 활발한 틈새시장 개척을 진행하지 못했었다.

이런 시장상황에서 로벤이 보급형 슈퍼슬림 웰빙 커피자판기를 선보였다. 이 제품은 제품외형은 슬림화하고 기존 대형자판기 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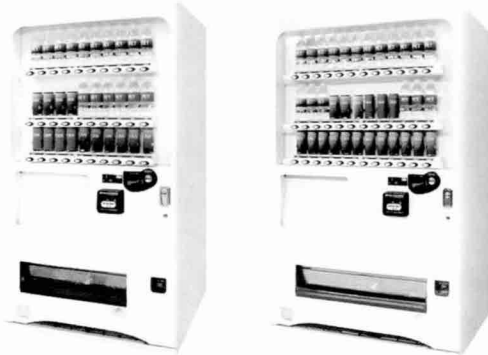
다 훨씬 저렴한 보급형 제품이다. 권장소비자 가격은 1,826,000원이다. 주로 대형제품이 커버하지 못하는 중 소형 로케이션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. 기존 미니커피자판기들이 용량부족의 한계를 드러내는 대형식당 같은 곳도 주공략 로케이션이다. 또 공간이 협소해 대형자판기를 설치하기 힘든 곳에 설치가 적합한 슬림형 제품이다. 제품 폭이 487mm에 불과해 공간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다. 이 제품은 200개까지 컵수용이 가능하고, 믹스커피는 물론 우리차까지 판매가 가능하다.

표준판매상품으로 레귤러 믹스커피, 프렌치 바닐라, 녹차 라떼, 복숭아홍차 등을 적용할 수 있다. 고객들이 기호에 맞게 진한 맛, 순한 맛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.

수도직결이 가능하므로 물을 채워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으

며, 제품표시부에 고장내용 및 품질내용이 표시가 된다. 유선 리모콘의 사용을 조작이 편리하며 모드별 항목번호 설정으로 확인이 간편하다.

다가능 캔 · PET 자동판매기



▲ RCP 5224 D1

▲ RCP 6530 D1

올해 캔자판기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는 단연 PET음료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다. 지난 해 롯데기공이 국내 최초로 PET음료 판매가 가능한 냉음료자판기를 선보인 이래 필드에서는 이 기종에 대한 인기가 증가하고 있다. 이러한 동향에 따라 로벤에서도 다양한 기능을 장점으로 하는 캔 · PET 자동판매기를 선보였다.

로벤이 선보인 캔 · PET 자동판매기는 2종류. 모델명 RCP 5224D1는 24칼럼 30버튼이고 RCP 6530D1은 30칼럼 36버튼의 대용량 제품이다. RCP 5224D1는 캔음료 최대 24종류, PET 최대 18종류, 소병 최대 8종류의 판매가 가능하다. 200ml 캔 기준으로 524개, 500ml 원형 PET 기준으로 288개 수용이 가능하다. RCP 6530D1은 캔음료 최대 30종류, PET 최대 18종

류, 소병 최대 10종류의 판매가 가능하다. 200ml 캔 기준으로 655개, 500ml 원형 PET 기준으로 288개 수용이 가능하다. 이처럼 대용량을 갖추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A급 로케이션에서 높은 운영효율을 올릴 수 있는 제품이다.

두 모델 공히 PET 음료를 다량 적용 판매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. 최근 음료시장 트렌드가 많이 PET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다량 PET 판매기능이 시장에 크게 어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.

적용되는 제품들은 랙(RACK)내의 가이드를 조정하며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다. 캔음료를 더 넣고 싶으면 더 넣고, PET 음료를 더 넣고 싶으면 더 넣을 수 있다는 얘기이다. 따라서 필드 환경과 소비층의 기호에 맞게 다양한 용기의 음료 판매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.

인버터 제어방식으로 1개의 콤프를 사용하여 3개의 EVA를 각각 제어하기 때문에 에너지 절전효과가 뛰어난 점도 장점이다. 아울러 형광등의 조도에 따라 밝기가 '최대한 밝게, 중간밝게, 약하게'로 조절할 수 있는 절전기능도 갖추어져 있다.

발포도어를 상하로 분리할 수 있는 구조라 냉기손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. 또한 '자동 LOCKING 장치 적용'과 '내부 HINGE PLATE 구성'으로 도난방지구조가 강화되었다.

리모콘 설정으로 간편하게 기능설정 확인이 가능해 운영 편리성을 기할 수 있다. 특히 유통기간 설정 기능이 있어 유통기간이 만료되면 판매가 정지된다.

로벤은 이런 다가능의 장점을 가진 캔 · PET 자동판매기를 가지고 적극적인 운영시장 공략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.